



통권 제 226호

강남. 라 00943

2566
2022

08

원정대성사 일대기
불공 잘해라
시절 인연



살다보면
노란 신호등



씨앗 한 알
괴로움 속으로
뛰어들 때
답은 있다

위드 다르마

영원한 진리와 함께

With Dharma

 불교총지중

고행^{苦行}과 해탈^{解脱}

인간은 이상과 현실의 이원적^{二元的} 대립 속에서 항상 심각한 번민을 경험하면서도
이상세계^{理想世界}의 실현을 희구^{希求}하여 마지않으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고苦的 올바른 인식과 이로부터의 해탈은 불교의 시발점이고 종착역이다.
해탈은 보리^{菩提}를 내용으로 하는 인격의 현실이다.

위드 다르마^{영원한 진리와 함께}

With Dharma

다르마^{다르마}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위드 다르마}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불교총지종은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일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불교이야기 _ 12

참회^{懺悔} 3

— 화령 정사



경전에서 찾은 지혜 _ 39

신심

— 불교총지종 법장원



여행여담 _ 59

구룡포 차차차

— lovely씨이

04 원정 대성사 일대기

12 불교이야기

18 살다보면

24 산책

26 우리절 노래꽃

28 마음의 등불

32 지혜의 뜨락

36 십선성취

39 경전에서 찾은 지혜

44 죽비소리

48 디딤돌

52 가배이야기

56 차향기

59 여행여담

64 독자기고

66 결망에 담긴 이야기

68 뜻 바꾸기

70 씨앗 한 알

74 가로세로 만다라세상

77 법회일정

불공 잘해라 - 제1장 시절 인연 _ 김천

참회^{懺悔} 3 _ 화령 정사

노란 신호등 _ 이옥경

향기 _ 김대곤

찬불가 - 〈우리 모두 성불하세〉 _ 묘원화 전수

신지도^{薪智島} 해녀의 숨비소리 _ 이승용

스마트 세상이 두렵다 _ 방귀희

삶에 대한 단상 _ 남혜 정사

신심 _ 불교총지종 법장원

방랑자와 마음의 님 _ 김봉래

욕망과 마음챙김 _ 신진욱

사찰의 커피문화 _ 김상미

여름과 녹차 _ 김정애

구룡포 차차차 _ lovely씨이

텃줄 _ 김용오

논리적 진실은? _ 법일 정사

태양^{太陽} _ 김재동

괴로움 속으로 뛰어든 때 답은 있다 _ 법상 스님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는 것

어린 시절 저는 병 우유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는 출근할 때마다 막둥이인 저에게

병 우유를 하나씩 사 주셨습니다.

어려운 살림 탓에 먹을거리가 늘 부족했지만

아버지는 저에게 우유를 주는 일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지나 아버지는 치매로 인해

가족들도 잘 알아보시지 못하고 계시지만,

아버지 생신을 맞아 오랜만에 식구들이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누님이 어린 시절 병 우유에 대한

사연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침마다 아버지가 사 주시던 그 우유는

사실 아버지의 출근 교통비와 맞바꾼 것이었습니다.

버스를 탈 수 없기에 서둘러 일찍 일어나

회사까지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막내 우유 사 주는 게 아버지에게

어떤 것보다 큰 행복이고 즐거움이었어.

좋아하는 막내의 모습이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이라며 말하곤 하셨는데...”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외투 한 벌조차 없던 가난한 살림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아버지의 출근길이 얼마나 추웠을지

잠시 생각하니 그저 뜨거운 눈물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시절엔 모르고 지나간 작은 일상의 기쁨이

사실 누군가의 사랑이자 헌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런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따뜻한 하루의 <따뜻한 감성편지 2022년 7월 5일 자>

불공 잘해라 제1장 시절 인연

김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인도철학과를 졸업
저서 '시대를 이끈 창종자'
'인생탈춤-태허 홍선 평전' 등



원정 대성사는 경전의 편찬과 역경을 통해 한국불교에 밀교를 처음으로 알렸으며, 1972년 한국의 밀교 대표 종단 불교총지종을 창종했습니다. 교상敎相과 사상事相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밀교의 확립에 노력하면서 '즉신성불即身成佛'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에 진력했습니다. 2021년 창종 50년을 기념하여 출판된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 '불공 잘해라'에 담긴 대성사의 삶과 가르침을 위드다르마에서 특별연재로 소개합니다.

5화-다시 만주로②

대성사 가족이 다시 돌아온 곳은 밀양읍에서 남쪽으로 낙동강변에 자리잡은 하남면 백산리라는 곳이다. 밀양강이 완만히 흐르다가 낙동강과 합쳐지고, 인근의 삼랑진과 진영에서 더 나아가 김해와 부산으로 이어지는, 교통과 물자가 오가는 상업의 요지이다.

백산은 영남 일대에서 가장 넓고 비옥한 진영평야의 중심에 있다. 장터는 활발하고 인근 삼랑진, 마산, 창원, 진해, 김해와 부산에서까지 장꾼들이 몰려와 늘 활기차고 풍요로운 마을이다. 대성사 가족은 외가에서 장만해준 백산리 676번지에 머물게 된다.

집터는 넓었으며 하남의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었다. 남쪽으로 낙동강이 흐르고 동쪽 편에는 밀양강이 흘렀다. 집에서 잠깐 걸어 나가면 낙동강이 보이고, 강 건너 진영쪽 모래톱이 섬을 이루

고 있는 평화로운 풍광과 만나게 된다. 모든 일은 순조롭고 살림은 풍족하며 오직 평안한 날이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어느 날 부친이 대성사를 불렀다.

“집안일을 돕는 것도 좋으나 이젠 학교에 갈 때가 됐다.”

“일본인이 세운 학교에서 그들로부터 배울 수 없습니다.”

“대구에 지사들이 뜻을 모아 학교를 세웠단다. 그러니 일본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아도 배울 수 있게 됐다. 너도 그곳에서 공부할 준비를 하거라.”

서간도 유하현에서 소학교를 마친 후 마땅히 배움을 계속할 기회가 없었다. 백산으로 돌아와서도 왜인들의 학교에 갈수 없어 집안에서 고서를 읽거나 지인들로부터 책을 구해 읽는 일로 지식에 대한 갈증을 풀 수밖에 없었다. 대체로 밀양 일대의 책이란 책은 모두 읽었다고 전한다. 당시 한학 서적과 불경은 물론이고 활자가 찍힌 책이라면 무엇이건 구해 읽던 시절이다.

그런 차에 진학할 수 있다는 소식은 대성사에게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길목이 됐다. 대성사 부친은 ‘사람은 마땅히 배워야 하고 배움을 통해 자신의 쓸모를 깨닫게 된다’는 지론이 있었다.

1924년 대구에 중등교육기관인 교남학교嶺南學敎가 문을 열었다. 애국지사 홍주일 등이 대구 남산동에 학교를 연 것이다. 학교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경상도 일원에서 600여 명의 학생들이 몰렸다. 대부분 일본 학교를 다니지 않은 강골의 학생



부부로서, 도반으로서 한평생을 함께 보낸
원정 대성사와 금강관 전수 젊은 시절

들이었다. 교풍은 당연히 반일 민족주의의 색채가 짙었다. 당시 대구에 유일한 민족 학교였기에 제대로 된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교남학교의 전신은 민족주의 강습을 하던 우헌서루와 그 맥을 이은 교남학원, 후신은 지금의 대구 대륜고등학교이다. 1921년 9월 우헌서루 한 편에서 교남학원으로 문을 열었고, 대구교남학교가 된 것은 1924

년 5월 21일의 일이다. ‘교남’은 문경새재 남쪽, 옛 경상도를 일컫는 이름이다. 대성사는 1924년 5월 대구 교남학교 고등과에 진학했다.

당시 대성사의 정신적 태도를 보여주는 일화가 전해지는데, 학생들이 모두 신식 교복을 입을 때 대성사만이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학교를 다녔다고 한다. 마음속 민족의식을 잃지 않은 기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남산동 대구 교남학교는 사립일본어학교를 인수하여 문을 열었다. 단층 벽돌 건물을 교사로 쓰고 당시 기준으로는 제법 교육 환경이 좋았으며 선생님들에 대한 평판도 좋은 편이었다.

지금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남학교 고등부의 교육과정은 4년. 교과는 수신과 조선어, 한문, 수학 등이 필수였고 상업과 이과 등을 함께 배울 수 있었다. 고등부를 졸업하면 대학이나 사범학교를 진학할 수 있었다. 당시는 보통학교 졸업으로 학업을 마치는 일이 대부분인 터라 고등부를 졸업한 이들은 고학력의 지식인 대우를 받았다.

당시 대성사의 집안 형편은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할 처지가 되지 못했다. 졸업과 동시에 하루라도 빨리 세상으로 나아가 일을 해야 할 처지였다.

1927년 대구 교남학교를 졸업한 대성사는 그해 6월 17일 금요일, 음력 5월 18일 정묘년 병오월 임오일(丁卯年 丙午月 壬午日)에 혼례를 치른다. 대성사의 나이 21세 때의 일이다. 신부는 진주 강씨 집안의 강숙이(姜淑伊), 불명은 금강관(金剛觀)으로 양가는 대성사 가족이 만주에 있을 때부터 집안끼리 혼담이 오고 갔으나 부친의 옥고와 여러 사정으로 성사되지 못하였고 결국 수년이 지난 후에 기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주변에서는 천생연분이라는 덕담이 이어졌다.

혼례는 처가 마당에서 전통예법에 따라 행해졌다. 강숙이의 집은 대성사의 집에서 길을 따라 북쪽 밀양읍 방면으로 걸어 한 시간 남짓 떨어진 상남면 평촌리. 상남면은 경남에서 손꼽히는 양잠마을로, 금강관은 어려서부터 누에를 치고 비단을 짜며 옷

을 만드는 일을 배워 가사를 돕고 집안일을 도왔다.

그 시절 여인들의 보통의 삶처럼 어려서는 부모를 따르고, 혼례를 치르면 남편을 섬기고, 자식을 기르며 집안의 화목과 번성을 이루는 것을 가장 큰 덕목으로 여겼다.

신랑 신부는 그날 처음 얼굴을 보고 절을 함으로써 부부가 되었다. 신부집에서 초례를 치르고 신랑 신부는 말과 가마를 타고 백산리 집으로 돌아왔다. 백산리에서 상례대로 시부모와 시조모를 2년 동안 모시고 시집살이를 한 후 분가하였다.

분가한 다음 해에 아들을 낳았으니 백훈^{白薰} 손순표이다.

자식이 태어난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일 중 하나이다. 자신을 닮은 아들을 보면서 대성사는 그가 살아야 할 세상을 생각했을 것이다. 보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 그런 시대를 열어주고 싶은 열망을 가슴에 지녔을 것이다.

대성사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책임을 무겁게 느꼈다.

단지 생활과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가정을 꾸려야 할 것 인지를 깊이 고민하게 된다.

다행히 금강관의 내조가 있어 세상을 향한 항해는 큰 어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었다.

금강관은 평소 남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성품이고,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없었다. 묵연히 대성사를 소리 없이 지켰는데, 몇 가지 사실에서 성품을 짐작할 수 있

다.

대성사를 기억하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특징이 있다. 언제나 입고 먹는 일을 절제하고 정갈히 한 점이다. 끼니는 간단한 찬 몇 가지의 소박한 상차림에 밥은 늘 일곱 숟가락을 넘지 않았다. 넘치게 먹지 않았다.

인간 육신을 지배하는 욕망 중 식욕과 수면욕은 겉으로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강렬한 징표이다. 정해진 시간이 아니면 눕지 않았고 때가 되어 끼니를 들 때면 과식하거나 먹을 것을 탐닉하지 않았다. 일체 간식을 찾지 않았을 뿐 아니라 때가 아니면 먹지 않았다.

또 한 가지는, 늘 의복을 정갈히 갖추 입었는데, 이는 금강관의 원력 때문이다. 젊은 시절에도 철마다 새로 옷을 지어 누구 앞에 서더라도 당당한 위용을 보이도록 했다. 어린 시절부터 옷을 짓고 안 살림을 살피는 일이 몸과 마음에 배인 덕이다. 의관은 겉으로 드러난 격식이라 내면도 중요하지만 외면 또한 허투루 하지 않았다.

여름이면 덥지 않도록 삼베며 모시옷을 지어 풀을 먹이고 다림질을 하여 대성사가 경전을 옮기거나 원고를 쓸 때 불편하지 않도록 하였다. 겨울이면 솜을 넣은 누비옷을 지어 육신을 따듯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였다. 결혼할 당시 양복 한벌이 소 한 마

리 값이 나갔다고 하는데, 교직에 있을 때 늘 철에 맞춘 양복으로 기품을 잃지 않았다. 고급 옷이 그 사람의 인품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나, 언제나 흐트러지지 않는 의복으로 세상에 모습을 보인 데는 금강관의 보이지 않는 내조가 있었다.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일가를 이끌어야 할시기에 세상은 다시 격변의 시기를 맞는다. 1931년 일제에 의한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만주 땅엔 괴뢰국 만주국이 세워졌다.

이런 혼란스런 시기에 1936년 5월 대성사는 경남 함양군의 학교비 위원회 서기로 취직하게 된다. 맡은 일은 군 전체의 교육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교육 관리비 담당. 오늘의 교육위원회 예산집행관에 해당하는 역할이다. 주로 함양공립농업실수학교(咸陽公立農業實修學校, 약칭 함양농업학교)의 예산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함양농업학교는 현재 함양중학교의 전신이다. 함양농업학교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모습으로 혁신적인 학교였다.

기와를 올린 한옥 양식의 2층 교사를 갖추고 있었고, 현대식 교과 과정을 충실히 갖춘 실력과 학교였다. 대성사는 이곳의 예산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간혹 학생을 직접 지도하기도 했다.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이 잇는 내륙의 오지로 전라도와 경



1936년 5월 23일 함양공립농업실수학교 재직 중 함양군 교육기념회. 맨 뒷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 대성사

상도의 경계에 걸쳐 있다. 논보다는 밭이 많고 보리가 주요 농작물이었는데 당시 함양농업학교는 경작법을 개량하여 많게는 4배의 수확량을 늘려 큰 주목을 받고 있었다.

교육 서기 생활은 비교적 평탄했고 나름 보람도 있는 일자리였다.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즐겁고, 세상의 혼란 속에서 내일의 인재를 키우는 일도 가치 있는 일이었다.

가정은 평화롭고 아들은 잘 자라고 있었지만 세상은 평화롭게 유지되지 않았다. 특히 대륙의 정세는 점점 불안해졌다.

참회懺悔 3

화령 정사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보디미트라 회장

참회의 중요성

참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반설하고 후회하며 상대방이나 대중들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15권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참^懺’과 ‘회^悔’는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참^懺’은 용서를 비는 것이고, ‘회^悔’는 스스로 죄를 고하는 것이다.

또 《육조단경^{六祖壇經}》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懺’이라 함은 지난날 지은 죄업, 어리석음, 거만함, 질투 등 죄업의 용서를 빌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이고, ‘회^悔’는 모든 악업, 어리석음, 거만함, 질투 등 앞으로의 잘못을 절대 짓지 않을 것을 각오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참회는 무엇보다도 남에게 자기



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으로 지난 잘못을 고치고 앞으로는 잘 행 하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전에 의하면, 우리 범부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한 것 보다는 잘못된 것이 많기 마련인데, 심지어는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 죄업이 아닌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죄업은 마치 검은 구름이 태양을 가리듯 우리들의 불성을 가로막아 우리로 하여금 생사의 바다에서 떠돌며 윤회를 멈추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화엄경보현행원품>에서도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의 끝없는 세월에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었던 탓으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악업이 한량없고 끝이 없으니, 만일 그 나쁜 업이 어떤 형체가 남아 있다면 가없는 허공으로도 그것을 다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순간순간 끊임없이 악업을 쌓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에서는 죄 짓는 것도 두려워해야 하지만 참회하지 않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극한 참회는 죄업을 소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옷이 더러워져서 빨면 새 옷같이 깨끗해지고, 논의 벼가 튼튼하게 자랐다면 설사 잡초가 다소 있더라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또 물 한 컵에 소금 한 주먹을 집어넣으면 물 맛이 짜기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물을 더 많이 섞으면 짠맛은 열 어질 것입니다. 참회는 깨끗한 물과 같아서 우리들의 죄업을 씻 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회하고 또 참회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돌덩이 하나를 그대로 물에 던지면 가라앉지만 배위에 올려놓으면 배의 부력 때문에 물속으 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참회는 나룻배와도 같아 우리들을 해탈의 열반으로 실어다 줍니다.

또 참회는 약초와도 같아 우리들의 번뇌 병을 치료해 주며 참회 는 밝은 불빛과도 같아 우리들의 캄캄한 무명을 비추어 주고 참 회는 성벽과도 같아 우리들의 몸과 마음 육근을 보호하여 줍니 다. 참회는 계단을 오를 때 잡고 올라가는 난간처럼 우리들이 성 불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며 참회는 장신구와도 같아 우리들의 보리과를 장엄하여 줍니다.

잘못을 했더라도 진실로 참회할 줄 알면 아무리 무거운 죄업도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정이 칼을 놓으면 그 자리에서 성 불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참회하는 것은 한없이 수승한 공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반경》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쁜 일을 했더라도 뒤에 드러내어 곧 참회하고 다시 짓지 말아야 한다. 흐린 물에 밝은 구슬을 두면 구슬의 위력으로 물이 곧 맑아지고, 연기와 구름이 없어지면 달이 곧 밝아지는 것이니, 악을 짓고 참회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불교의 많은 법문 가운데에서 참회는 필수적인 수행의 덕목입니다. 초기불교의 교단에서는 모두가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기 위하여 자자^{自委}와 포살^{布薩}이라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자자라는 것은 안거가 끝난 뒤 수행승들이 서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참회하고 대중의 용서를 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또 포살이라는 것은 매달 초하루와 보름, 두 번씩 대중들이 모여 자기의 행위에 잘못이 없었는가를 대중들에게 물어보고 참회를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 의식에 참여하여 혹시나 당신의 잘못이 없는가를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지적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보름날 밤에 포살 의식이 행해졌는데 500명이나 되는 비구들이 차례대로 나와서 자신에게 잘못이 없는 지를 대중에게 물었습니다. 500명이나 되는 비구들이 차례로 나와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달라고 했으나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포살 의식에서는 침묵이 곧 긍정의 대답이었습니다. 500명의 비구가 그 누구도 허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도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 달라고 하셨는데 역시 대중들은 침묵했습니다. 이 장엄한 광경을 보던 한 비구가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일어서서 시로써 이 장면을 찬탄한 것이 《아함경》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승가에서도 포살과 자자가 아직도 잘 행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처님 시대에도 이렇게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는 의식이 행해졌던 것을 보면 참회가 불교수행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참회문을 입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매번 마음을 다해서 잘못을 참회하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워야겠습니다.

노란 신호등

이옥경

수필가 · 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던 일이 현실이 되어 나타났다. 완도 앞바다에서 인양된 외제 승용차,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된 일가족 세 명의 시신이 그것이다. 세상에 어떤 죽음이 안타깝지 않겠나만, 마음이 아프다 못해 분노마저 느껴지는 건 부모의 극단적 선택에 희생된 열 살 어린 소녀의 죽음이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의 마지막 선택은 얼마나 절절했을 것인가. 게다가 사랑으로 낳아 기른 자녀마저 자신의 손으로 생을 마감하게 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기까지 그 마음의 지옥은 얼마나 뜨거웠으며 또 얼마나 고심 참담했을 것인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여인은 자살을 결심하고 세상에 남겨질 네 아이를 위해 마지막 저녁밥을 지었다. 가난한 살림과 모진 시집살이, 불화를 몰고 다니는 동기간, 그리고 그 모든 걸 더한 것보다도 몇 배 더 참담한-밖으로만 돌면서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남편에 대한 절망감을 이기지 못해서. 아이들의 모습을 눈에 담고 마음에 새기고, 목구멍까지 터져 오르는 눈물을 꺾꺾 눌러 참



으며 집을 나서려는데 서너 살 된 막내가 치마꼬리에 매달리더라. 어미를 떨어지면 한시도 못 사는 줄 아는 이 어린 것을... 하는 마음에 막내를 업고 강으로 향하는 길, 처음엔 엄마 등에서 신바람을 내던 막내가 어스름이 내려앉은 괴괴한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칭얼거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엄마랑 같이 죽자는 말에 온 힘을 다해 버둥거리며 나는 죽기 싫다고, 무섭다고, 집에 가자고 울며불며 아우성을 치더라. 사는 게 무언지, 죽는 게 무언지도 모를 막내의 몸부림에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지으려는 건가 싶어서 머리카락이 쭈뼛 솟았다는 그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옥문 앞이더라는 그녀는 수십 년이 흘러 돌아가시기 전 까지도 그날 그 이야기를 하며 가슴을 쓸어내리던... 내 어머니였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기록은 둘째 치고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10만 명 당 25.1명, 연간 12,97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여자의 자살 동기가 모든 연령대에서 정신적 어려움으로 나타난 데 비해 10~20대 남자는 정신적 어려움, 30~50대는 경제적 어려움, 60대 이상은 육체적 어려움으로 조사됐다. 마음 아픈 일이긴 하지만 누구도 그들을 비난할 수 없다.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그들의 심정은 얼마나 비통하고 두려웠을 것인가.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것 같은 외로움은 얼마나 컸을 것이며, 남겨진 많은 것들을 향한 미련과 미안함은 또 얼마나 절절했을까. 그러나 옳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럴 용기로 살아야 했다.

이유야 어찌 됐든 동반 자살이라는 미명 하에 가족 모두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것은 어떤 말로도 미화될 수도 없고, 용서받아서도 안 될 일이다. 특히나 채 피어 보지도 못한 어린 자녀의 생명을 꺾는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는 온정적인 시각도 거두어져야 한다. 자녀를 죽

음에 이르게 하는 비속^{卑屬} 살해는 자녀의 인권을 무시한 아동 학대이자, 남겨진 자녀의 불행한 삶을 막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일방적 선의로 포장된 살인 행위일 뿐이다.

10여 년간 치매 아버지를 돌보던 아들이 어쨌네..., 전신불수 아내를 홀로 간병하던 구순 노인이 저쨌네..., 우리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던가. 하지만 자식이 부모의 목숨을 빼앗는 존속^{尊屬} 살해 역시 천륜을 거스르는 범죄이며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 또한 살인행위라는 범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살 배경은 질병을 동반한 생활고나 경제적 어려움, 신병 비판, 가족 간의 갈등이 대부분이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노부모나 배우자 간병에 지친 자식이나 어느 한쪽 배우자가 낙담과 절망 끝에 선택하는 동반자살도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발등의 불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일 수도 있다. 이러한 사건이 알려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에 동정과 연민을 보낸다. 부모(또는 자식)의 위기가 곧 가족 전체의 위기가 된다는 무의식적인 공감은 부모(또는 자식)의 그릇된 선택에 엄중한 잣대를 내려놓게 한다.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을 다할 수 없을 때, 죽음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잠재적

인 동의가 불러온 온정적 사회적 분위기가 범죄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사는 데 어찌 봄날만 있을까. 맑은 날이 있으면 폭풍우 몰아치는 날도 있고, 꽃 피는 날이 있으면 홍수나 폭설에 발이 묶이는 날도 있다. 나의 삶도 굽이굽이, 삶의 끈을 놓아 버리고 싶을 만큼 지난한 시절이 있었고, 시련에 좌절한 채 세상을 등진 친구와 이별하는 아픔도 겪었다. 하지만 딱 그만큼이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 길도 돌아보면 어느새 아스라이 멀어져 있다. 마음을 단단하게 해 주는 건 딱 그만큼, 견딜 만큼의 고통인 것도 같다.

그러니 부디..., 존재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할 생명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극단적 선택을 강요당하고, 끝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현실의 벽에 부딪쳐 부서지고 으깨진 몸과 마음을 다잡아 일으켜 자신을 바로 세우고 온 힘을 다해 가족의 안위^{安危}를 두루 지켜낼 수 있기를. 애써 가꾼 꽃을 잘라버리는 어리석음 대신 뼈를 깎는 인고^{忍苦}의 시간 앞에 몸을 낮추고 『입보리행론』에 담긴 인연의 소중함을 차근차근 짚어 보기를.

수천의 생을 반복한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드물다.그러니 지금 후회 없이 사랑하라. 사랑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약한 자에게는 절망이 장애물이지만 강한 자에게는 징검다리’라는 말을 남긴 영국의 역사 비평가 토머스 칼라일은 4년 만에 완성한 「프랑스 혁명」의 원고가 하녀의 실수로 잣더미가 되자 크게 좌절했다. 하지만 공들여 쌓은 담장에서 허점을 발견한 벽돌공들이 미련 없이 그것을 무너뜨린 후 처음부터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올리는 모습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초고보다 더 훌륭한 원고를 완성했다고 한다.

절망을 징검다리로 승화시킨 칼라일처럼 진정한 용기는 절망 앞에 쉽게 자신을 내던지거나 죽음을 선택하는 비겁한 용기가 아니라 고난과 맞서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일 것이다. 때로는 노란 신호등도 필요하다. 더도 말고 딱 한 걸음만 멈추고 돌아보자. 험난한 길을 함께 걸어준 아름다운 인연들이 거기 있지 않은가. 가시덤불 사이에서도, 벼랑 끝 바위 틈새에서도, 잡초 우거진 비탈에서도 더불어 피고 지는 꽃-누군가가 그리도 염원했던 내일을 사는 우리는 열 번 스무 번 그렇게 다시 피어야 한다.

나름 화려한 향기를 뽐어
시선이 머물러 잔잔해지던 정원

씨앗을 뿌리고
은빛 물을 적셔도 이제는
일어설 수 없는 회색의 바닥

그래도 불어오는 바람 한줄기
청명한 하늘빛
흐름의 구름조각들

이것으로도 느껴지는
너의 향기
수국 같은 맑은 향기

눈 뜨지 않아도
충분히 취할 수 있다.

찬불가

- 〈우리 모두 성불하세〉

덕신 스님 작사, 이달철 작곡

묘원화 전수

벽룡사

우리 모두 성불하세

민요풍으로 ♩ = 82

덕신 스님 작사 / 이달철 작곡

mp

1. 염불 하는 공덕으로 백팔 번뇌 사라지고
2. 염불 하는 공덕으로 팔만 번뇌 사라지고

7

염불 하는 공덕으로 백팔 번뇌 드러나네
염불 하는 공덕으로 온갖 삼매 드러나네

13 *mf*

석 가 모니불 염불하면 일체 중생 깨침 얻고
아 미 타 - 불 염불하면 극락 세계 갈 수 있고

17

문수 보살 염불하면 지혜 문이 다 열린다
관음 보살 염불하면 모든 소원 성취된다

23 *mp* *mf*

3. 보현 보살 - 염불하면 - 범공양이 - 두루하네 -
4. 끝이 없는 - 염불속에 - 묘한 향기 - 피어나네 -

31 *f* *mp*

지장 보살 - 염불하면 - 지옥고통 - 벗어나네 -
염불하여 - 마음 닦아 - 우리 모두 - 성불하세 -

39 *mp*

5. 우리 모두 - 성불하세 - 세 -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신나는 찬불가로 불편한 느낌들을 날려버리자.

쿵짜자자 쿵작작 쿵짜자자 쿵작 6/8박자 민요풍의 이 노래는 신나는 반주에 맞춰 부르다 보면 염불 속에 빠져들 듯 세상 시름을 잊게 하는 매력이 있다. 단순한 멜로디가 반복되어 쉬울 것 같지만 간주가 세 군데나 있어 무반주로는 멋지게 부르기가 어렵다.

이 곡은 찬불가 작사로 유명한 대구 팔공산 대륜사 주지이며, 좋은 벗 풍경소리 2대, 5대 회장을 맡아 애써주신 덕신 스님이 가사를 썼다.

곡은 〈우리도 부처님같이〉로 유명한 이달철님 작품이다. 이달철님은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불교 음악인들의 활동이 많이 축소 되었지만 언택트 공연이든 유튜브 공연이든 많은 음악인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대구를 중심으로 덕신 스님과 함께 불교예술을 아이টে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대구사랑예술인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2022년 7월 첫 공연을 했다.

〈우리 모두 성불하세〉는 40여 년 동안 음성공양으로 불법홍포에 앞장서온 불자 성악가 소프라노 김양희와 테너 이준형이 함께 부른 찬불가 음반 ‘좋은인연(2013)’에 수록되어 있다.

이 음반에서 〈우리 모두 성불하세〉는 테너 이준형이 솔로로 힘 있고 경쾌하게 불러준다. 중앙대 예술대학원에서 성악을 전공한 테너 이준형 역시 여러 사찰과 불교단체에서 지휘를 맡아 불교음악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신지도薪智島 해녀의 숨비소리

이승용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구교수

月弦濤聲縮	월현도성축	상현과 하현에 파도 소리 줄면
女伴屯似苞	여반둔사포	해녀들 짝 이뤄 풀처럼 진을 쳐
相顧催渾脫	상고최혼탈	돌아보며 옷 벗으라 재촉하고
腰際審綰包	요제심관포	허리춤 꼭 묶었는지 꼼꼼히 살피네
蹈海若平塗	도해약평도	바다에서도 평지를 걷듯 하고
長物人一匏	장물인일포	저마다 두레박 하나 끼고 있네
倒首歧足入	도수기족입	머리 숙여 발을 차고 입수하니
忽訝水居蛟	홀아수거교	물에 사는 인어인가 의아하네
移時閭無影	이시격무영	잠시 사이에 고요해져 그림자도 없으니
復悵餌鰲蛟	부겹이오교	바다거북과 상어한테 잡혀먹히지는 않았는지
俄看迭出頭	아간질출두	잠시 뒤에 보니 번갈아 머리 내밀고는
砉砉聲如嚆	획획성여효	휘파람 불듯 숨비소리 내뿜네
出沒十餘轉	출몰십여전	오르락내리락 십여 차례 반복하더니
有物溢筐筭	유물일광소	광주리에는 해산물이 가득
週坐驗豐寡	주좌험풍과	둘러앉아 해산물 헤아리는데

撲撲象巖齧	복복상암오	바위처럼 수북이 쌓여 있네
藝絕猶見陋	예절유견루	뛰어난 재주에도 천대받아
村閭禁并巢	촌려금병소	마을에는 함께 살지 못하네
漢人誇鰻大	한인과복대	중국 사람들 전복 크다고 자랑하며
或如數指交	혹여수지교	손가락 몇 개 겹친 크기라 하는데
今看類盥盤	금간유관반	지금 보니 대야와 쟁반만 한 것도 있고
小如馬上鑊	소여마상요	작은 것도 말 위의 자바라만 하네
其味冠海產	기미관해산	그 맛은 해산물 중 으뜸이니
島儉飫膾炮	도창어회포	섬사람들 회와 구이로 실컷 먹네
京闕道里遼	경궐도리요	여기와 멀리 떨어진 대궐에서는
淡薄充御庖	담박충어포	담박한 음식으로 수라간 채우니
爭得奉新採	쟁득봉신채	어찌하면 갓 채취한 해산물 받들어
薦作萬歲餽	천작만세효	만세 누리실 음식으로 바칠까나

- 이광사(李匡師, 1705~1777), 『원교집선(圓峯集選)』 3권, 「기속(記俗)」

신지도는 전라남도 완도군에 속하는 섬으로, 현재는 전복의 산지로 유명하지만 과거에는 절도^{絶島}의 유배지로 손꼽히던 곳이다. 조선 후기의 저명한 서예가였던 이광사도 신지도에서 15년간 유배를 살다가 생을 마감하였다.

그는 괴롭고 견디기 힘든 유배의 일상을 서예와 시를 짓는 일로 달랬다. 신지도에서 체계적 서예 이론서인 『서결^{書訣}』을 집필하였고, 부령 유배지에서처럼 틈나는 대로 붓을 들어 시를 지었다.

유배형에 처해진 사람은 낯선 공간에서 느끼는 불안감, 개인적 울분,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 내면의 정서를 시에 담아내기도 했지만, 유배지의 새로운 환경과 문화를 체험하면서 유배지의 풍경과 풍속, 지역민의 생활상을 시에 담아내기도 하였다.

이광사가 함경도 부령^{富寧}에서 전라도 신지도로 유배지를 옮긴 뒤 물질하는 해녀들의 모습을 생생히 기록한 위의 고시^{古詩}는 후자에 속하는 작품이다.

이광사의 눈에는 신지도 바닷가의 풍경과 신지도 사람들의 일상이 이색적이고 신기하게 다가왔다.

특히 해녀들이 무리 지어 물질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듯하다. 해녀들의 입수 과정에서부터 물밑과 물 위를 오가며 숨비소리를 내뿜는 모습, 채취한 해산물을 세는 모습을 세밀한 관찰력으로 시에

담아내었다.

당대 유배인들이 남긴 기속시^{記俗詩}에도 바닷가 사람들의 삶과 그 모습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은 보기 드물다.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 중에 이광사 눈에 띄는 해산물은 단연 전복이었다. 대야와 쟁반만 하다는 표현에 과장이 섞여 있는듯하지만, 자신의 눈에 유난히 크게 보였던 완도 전복을 실감나게 묘사하기 위해서 그런 듯하다. 이광사가 신지도의 이색적인 풍경과 해녀들의 모습을 시에 담아낸 데에는 물론 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뛰어난 재주를 지녔음에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던 해녀들에 대한 연민과 그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투영된 것이 아닐까.

근래에 완도군 신지면에 이광사의 적거지가 복원되었고, '원교 이광사 문화거리'도 조성되었다고 하는데, 완도를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이광사가 신지도에 남긴 자취를 더듬어 봄직하다.

스마트 세상이 두렵다

방귀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송실대학교 겸임교수
 <E美지> <숫대평론> 발행인
 저서 : <불교의 복지사상> <배제와 포용>
 <상상한 메시지를 팝니다> 등

태극 마크가 부착된 누리호 발사를 보면서 가슴이 뭉뚱했다. 온전히 우리 힘으로 우주 시대를 열고 있는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자랑스러웠다. 우리나라도 드디어 우주국이 되었다. 미래는 우주가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우주시대라고 한다. 이제 우주에 외계인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는 어떻게 우주를 사람이 이용할 것인지 그 방법을 찾는 우주과학에 인간의 생존 문제가 달려있다.

아날로그 시대가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과학이 신기하지만 그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디지털 시대로 이주온 기성세대들은 눈만 뜨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초고속 과학 사회에서 미개인 취급을 받는다.

내가 요즘 바로 그런 상태에 놓였다.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동네에 한글을 모르는 젊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사우디에 근무하고 있는 남편한테 편지가 오면 나한테 달려왔다. 나는 장애 때문에 늘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편지를 읽어줄 수 있는 유일한 동네 아이였다.



처음에는 ‘여보’로 시작하는 편지를 읽는 것이 쑥스러웠지만 여러번 하다보니까 나도 모르게 감정을 넣어서 읽어주었다. 그래서인지 편지를 읽는 사이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편지를 읽고 나면 답장을 쓰는 것도 내 몫이었다. 그런데 불러주는 대로 쓰면 편지지 반도 채워지지 않는다. 대개 아이들 학교 잘 다니고, 자기도 잘 지내니 걱정하지 말고 건강 조심하라는 것이 전부였다. 그때 국군장병 아저씨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며 선생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나라를 지키는 국군아저씨들에게

잠시라도 위안이 되려면 편지를 길게 써야 하고, 멀리 떨어져있는 분들이라서 군대 밖 소식을 궁금해하니 그런 소소한 일상을 재미있게 적으라는 것이었다.

그 당시는 동네 사람들의 일상이 동네 사람들 모두에게 공유되던 시절이라서 나는 자연스럽게 그런 내용들을 담을 수 있었고, 편지의 마지막에 늘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랑의 표현을 잊지 않았다. 직접 편지를 쓸 수 있는 사람도 항공봉투에 영어로 써야 하는 주소는 내 손을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했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식들은 나처럼 친절하게 바로 바로 서비스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 시절의 편지 대필로 나는 작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그때의 노고가 헛되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성심을 다해도 와주었던만 디지털 문맹자인 나는 몰라서 물어볼 곳이 AS센터 밖에 없다.

AS 상담원은 '무엇을 도와드릴까?'라고 응대를 시작하지만 막상 발생한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고객님'이라고 말을 자르면서 말도 안된다는 식으로 짜증을 낸다. 내가 요즘 받는 디지털 문맹도 이렇게 서러운데 더 나아가 AI 세상에서 나는 또 얼마나 구박을 받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스마트폰 하나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마 어마하게 많아졌지만 그것들을 이용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그런데 겨우 익숙해지려면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어떻게 된 세상인지 사람은 불신의 대상이고 기계는 신뢰를 받는다. 사람은 기계의 신뢰를 받기 위해 비밀번호를 대야 한다. 얼마전 이사를 했는데 스마트홈 시스템이라고 좋아했더니 내 집 안에서도 비밀번호 없이는 아무 것도 사용할 수가 없다. 인간이 기계화되어가는 듯하여 두려운 생각이 든다.

우주시대가 우리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은 알려진 것이 많지 않은 신비로움 때문이다.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이던 우주 여행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이제 꿈이 아니라 현실이다.

어쩌면 종교와 우주의 본질은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종교는 인간의 힘으로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에 위안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일의 종교학자 자오침 바하는 종교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궁극적 본질에 관한 것, 우주와 세계에 관한 것, 세계 속의 인간이라고 하며, 신학과 우주론 그리고 인간론이 종교적 사유의 중심이 된다고 하였다.

불교야말로 우주를 인간의 정신세계로 끌어들었다. 그래서 우주시대의 행복을 위해서는 과학과 함께 불교 공부로 우리의 마음부터 넓혀놓아야 한다.

삶에 대한 단상

남해 정사

단음사 주교

태어난 것은 죽고, 모인 것은 흩어지며, 축적된 것은 소진되며, 쌓아올린 것은 무너지며, 높이 올라간 것은 아래로 떨어진다.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는 것도 모른 채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며, 몸과 입과 뜻으로 무의미한 행위만 반복하다가 결국 빈손이 되어 다음 생을 맞이하게 된다.

요즘 세상은 인간의 존엄성보다 물질적 가치가 중시되는 세상이다. 이러한 세상일수록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이고, 가장 잔인한 것도 사람이고, 가장 못믿을 것도 사람이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도 사람이고, 가장 자비로운 것도 사람이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것 또한 사람이다. 아직까지는 그 믿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남들보다 잘나고 싶어 하고, 많이 가지고 싶어 하고, 특출난 존재이기를 바란다. 이러한 이기적 욕망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가장 힘세고 튼실한 사마귀라도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아무리 힘세고 튼실한 사마귀라도 하늘을 나는 새들의 입장에서는



튼실한 먹잇감에 불과하다.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이기적 마음을 불교에서는 말라야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통해 이기적인 마음을 자비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다. 수행이 된 사람은 자신을 본보이려 하지 않고, 진실되고 소박한 삶을 살고, 옳은 일을 하며, 자신이 가진 힘으로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려한다.

단음사에 온지 3년이 되었다. 단음사가 있는 영천은 나에게 연고가 없는 생소한 곳이다. 아는 사람도 없고, 지역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대부분의 시간을 단음사 사원 내에서 보낸다. 자연히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았으며, 어느 순간부터

는 홀로 있는 행복이 당연히 되었고, 홀로 있는 행복에 무덤덤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혼자 있다는 그자체가 행복도 불행도 아닌 그 어느 중간쯤 다다랐을 때, 사람은 자기 생각만큼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다는 사실과 중요한건 삶의 목적에 질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결국 수행은 고독 속을 걸으며 바라는 것 없이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저 광야를 달리는 코뿔소의 외뿔처럼 홀로 가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삶은 결국 혼자 가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광기에 환호하며, 불행에 굴복한다. 하지만 수행자는 그들을 결눈질로 바라보고, 버림받은 자가 되어 홀로 걸어간다. 영혼이 죽어 혼돈의 바다 속을 헤매는 사람들 사이에 살 자격이 있는 산호처럼.

수행은 진정한 자신을 찾게 해주고 사랑은 진정한 자신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다. 수행은 나에게 보물을 선물하며 사랑은 그 보물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다.

수행이 깊어지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이 되고 사랑이 깊어지면 사랑하는 자도, 사랑받는 자도 사라지고 사랑만 남는다.

믿음에 열 가지 뜻이 있으니 무엇이 열 가지인가 하면,
첫째, 맑게 하는 뜻이니 능히 심성(心性)을 청정하고 명백하게 하며,
둘째, 결정하는 뜻이니 능히 심성을 순박하고 견고하게 하며,
셋째, 환희하는 뜻이니 능히 모든 근심과 번뇌를 끊어버리며,
넷째, 염족(厭足)이 없는 뜻이니 능히 게으른 마음을 끊어버리며,
다섯째, 수희(隨喜)하는 뜻이니 남의 선행에 같은 마음을 일으키며,
여섯째, 존중하는 뜻이니 모든 덕 있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으며,

일곱째, 수순(隨順)하는 뜻이니 듣고 보는 것을 거스리지 않으며,
여덟째, 찬탄하는 뜻이니 남의 훌륭한 행위를 지극한 마음으로 칭찬하며,

아홉째, 무너지지 않는 뜻이니 오로지 한결같은 마음이 있어서 잊거나 잃지 않으며,

열째, 애락(愛樂)하는 뜻이니 능히 자비한 마음을 성취하는 까닭이니 이것이 열 가지 뜻이니라.

신심은 곧 그 심성을 청정 명백하게 하며

그 마음을 결정하여 순박 견고하게 하고
 신심은 곧 환희하여 근심 번뇌 끊어주며
 염착심이 없어져서 게으른 마음 없어지고
 신심은 곧 수희하여 남의 선행 도와주며
 유덕자를 존중하고 경만하지 아니한다.
 신심은 수순하여 가르침에 어김없고,
 남의 승행^{勝行} 지심으로 찬탄하는 마음이며
 신심은 곧 전일하여 무너지고 망실없이
 즐거웁게 자비심을 성취하는 것이니라.

(석마하연론, 釋摩訶衍論)

옛날 사위국 동남쪽에 큰 강이 있었는데 매우 넓고 깊었다.
 강변에는 오백여 호나 되는 인가가 있었으며, 그 사람들은 아
 직 도덕으로써 세상을 제도하는 행^行을 듣지 못하고, 군세고
 강한 것이 버릇되고, 샷된 것만 힘써 탐하고, 이익되는 것만
 마음대로 행함을 즐겁게 여겼다.

세존께서 ‘이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 내가 가서 제도해
 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강가에 이르러 어떤 나무 밑에 앉아
 계셨는데,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광명이 예사롭지 않음을
 보고 모두 놀랐다.

그리하여 곧 그곳에 가서 엄숙하게 예를 갖추어 공손히 절
 하고 인사를 여쭙었다. 부처님께서서는 이들을 앉게 하고 경법^{經法}
 을 설했으나 그들은 속임과 게으름에 젖어서 진실한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곧 한 사람을 강의 남쪽에서 오게 하였는데, 그가 물위를 걸어도 겨우 발목이 잠길 뿐이었다. 이 사람이 곧 부처님 앞에 이르러 머리를 조아리고 예를 드리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괴이하게 여겨 그 사람에게 물었다.

“우리들이 대대로 이 강변에 살았지만 사람이 물위를 걷는다는 말은 일찍이 듣지 못했는데, 그대는 누구며 무슨 도술이 있기에 물위를 걸어도 빠지지 않는지 들려주십시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는 강남에서 제일 우직한 사람으로서 부처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말을 듣고 부처님의 도덕을 흠모하여 뵙고자 남쪽 강변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강을 건널 수 없어서 저편 언덕 사람에게 물의 깊이를 물었더니 그 사람이 ‘물의 깊이는 발목에 불과한데 왜 건너가지 않느냐?’고 하기에 나는 그 말을 믿고 곧 건너온 것일 뿐 다른 술법은 없었소.”

이때에 부처님께서 칭찬하셨다.

“장하다. 무릇 지성으로 굳게 믿으면 생사의 바다도 건너는 데, 강물 건너온 것이 무엇이 기이하겠는가.”

이에 세존께서 곧 계송을 설하셨다.

“믿음으로 고해 건널 때 사섭^{四攝}은 곧 뱃사공 되니
정진하면 괴로움을 없애고 지혜로 저 언덕 가네.
누구든지 믿고 행하면 부처님의 칭찬을 받고
무위법을 즐기는 자는 얽매임에서 벗어나리라.
신심으로 도를 얻으며 법으로써 멸도 이루고,
다문^{多聞}으로 지혜 얻으니 이루는 것 광명이 있네.
믿음이나 계행이거나 지혜로써 능히 행하면
훌륭하게 성념을 끊고 고해에서 해탈하리라.”

이에 그 마을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증거를 보았으므로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굳어져 모두 오계^{五戒}¹⁾를 받고 청신사^{淸信士}²⁾가 되어 밝은 믿음으로 날로 닦아 법의 가르침이 널리 전파되었다.

〈법구비유경 法句譬喻經, 불교총전 발췌〉

1) 오계五戒 : 불교에 귀의하는 재가在家 남녀가 받는 다섯 가지 계율. 불교도 전체가 지킬 계율. ① 중생을 죽이지 말라. ② 흠치지 말라. ③ 음행하지 말라. ④ 거짓말하지 말라. ⑤ 술 마시지 말라.

2) 청신사淸信士 : 범어 우바새優婆塞의 번역. 불교 교단 7종의 1. 삼보에 귀의하여 오계를 받아 지키는 세속남자를 거사居士, 처사處士라고도 한다.

방랑자와 마음의 님

김봉래

불교방송 전법후원국장

“홀로서기도 가능하고 주위에 도반 인연도 가득한 법”

“그림자 벼를 삼아 걷는 길은 서산에 해가 지면 멈추지만 마음의 님을 따라 걷고 있는 나의 길은 꿈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길. 방랑자여 방랑자여...” 필자도 젊은 시절 많이 부르곤 했던 박인희 가수의 노래 ‘방랑자’는 뚜렷한 길을 찾은 듯 못 찾은 듯 그렇게 방황하던 이들에게 상당한 위로가 되었던 것 같다.

우리는 갈 길 몰라 헤매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확신이 들어 내달리기도 한다. 그런데 스스로 결정한 길, 그 길이 흔들림 없고 늘 행복한 길이라면 좋겠지만 세상에 그런 경우란 드물 것이다.

필자에게 마음의 님은 부처님이었기에 가르침을 받은 그 길을 따라 나름 부단히 걸어왔다고 자부한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다가 방향을 불교철학으로 바꾸었고 지금까지 불교 관련 직장에서 매진해 왔다. 의지할 것은 자신과 진리뿐이라는 자등명 법등명 自燈明 法燈明의 말씀에 기대며 스스로의 정당성을 삼기도 했다.



그런데 점점 ‘그 길’이 어떻게 생겼으며 또 얼마나 잘 걸어왔는지 돌아보니 불확실함을 깨닫게 되었다. 불교를 화두로 매진해온 삶이기에 참으로 행운아라고 생각되지만 때로 후회스런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이다. 가지 많은 길에 대한 미련

같은 것인가.

그러한 자신을 위로하고 마음을 다잡기도 하는 이유는 그래도 이것이 최선을 다해 찾은 최선의 길이라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주위 의견은 참고로 듣는 것이고 어떤 것이든 최종 결정은 결국 본인이 한 것이니 누구를 탓할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길 위에 놓인 우리 인생은 일단은 방랑자처럼 홀로 걷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기도 하지만 홀로 왔다가 홀로 가고, 두 발로 홀로 설 수 있어야만 제대로 걸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그 길은 기본적으로 외로운 길이 아닐 수 없을 것 같다.

흔히 인생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이야기들을 한다. 부처님께서도 우리가 공부하는데 도반^{道伴}이 전부라는 말씀까지 하셨으니 도반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좋은 도반을 찾지 못하면 차라리 무소의 뽕처럼 홀로 가라 하셨으니 이 무슨 뜻인가. 의지할만한 도반이 없다면 홀로서기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인가.

주위에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심입명을 이룬 많은 미담사례들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 80살이 가까운 한 보살님은 젊어서 남편을 잃고 중병까지 앓았지만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하며 살다보니 병도 낫고 가정도 편안해졌다. 보시도 하고 권선도 하고 50살 넘어 시작한 서예도 마침내 작가로 데뷔하게 되었다. 무슨 성과를 바란 게 아니라 붓만 잡으면 그저 행복했기에 부단히 정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생애 처음 개최한 개인전에서 보여주신 보살님의 곱디고운 흰머리에 얼굴 가득 환한 함박웃음을 잊을 수 없다.

요즘 유행하는 ‘따로 또 같이’라는 말처럼 인생은 홀로 가는 외로운 길만은 아니요, 선하거나 선하지 못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공동체의 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거나 자기가 원하는 친구나 도반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야만 할 일은 아닐 것이다. 인연마다 반가이 맞이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홀로서기는 자동일 뿐 아니라 좋은 도반도 다가오고 스스로 좋은 도반도 될 것을 믿는다. 만사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될 마음의 님은 소중한 내면의 보물이라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되새긴다.

욕망과 마음챙김

신진옥 법사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겸임교수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

불교는 욕망을 완전히 제거하고 없애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바는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욕망을 무엇인가를 하려는 의지로 보고, 삶이 지닌 에너지의 일부로 보기도 한다.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를 건강한 방식으로 일으키면 건강한 욕망이 일어나고,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를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으키면 건강하지 못한 욕망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불교는 건강한 욕망과 건강하지 못한 욕망을 구분하고 있다.

전통적인 설명에 따르면 건강하지 못한 욕망에는 탐욕, 중독, 지나친 야망, 도박, 여색에 빠지는 것, 과욕 등이 있다. 건강하지 못한 욕망은 강한 소유욕, 자기중심적 태도, 불만족, 강박적 충동, 무가치하다는 생각, 끝없는 탐닉과 그와 비슷한 괴로움을 일으킨다. 극단적인 경우 욕망은 중독으로 변한다. 불교에서는 중독의 상태를 배고픈 귀신이 되는 것에 비유한다. 아귀라는 배고픈 귀신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다. 그것은 욕망이 더는 채워지지 않으며 갈애의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는 의식 상태를 일컫는 것이다. 배고픈 귀신은 중독자처



럼 한 번의 음주, 마약의 황홀감, 한동안의 탐닉 후 잠시 멈추었다 다시 더 많이 원한다.

건강한 욕망은 돌봄, 감사, 자애와 관련이 있다. 이 건강한 욕망은 우리 모두에게 헌신, 끈기, 책임감, 우아함, 관대함, 유연함을 일으킨다. 건강한 욕망이 있을 때 자신을 먹이고 입히고 돌볼 수 있다. 우리의 몸과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 우리의 일과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다. 건강한 욕망은 행복의 원천이며, 우리를 자유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불교는 건강하지 못한 욕망을 내려놓고 건강한 욕망을 ‘가법계’ 붙들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욕망의 뿌리를 중립적인 정신 요소와 연결 짓고, 욕망과 현명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욕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욕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몸과 마음의 친밀한 경험으로 느껴야 한다. 욕망은 고상한 기쁨에서 과도한 중독으로 우리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신체적 생존에서 영적 갈망으로 우리를 고양시킬 수도 있다.

우리는 마음챙김으로 욕망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통찰할 수 있다. 우리가 마음챙김으로 늘 깨어있으면 몸의 감각이나 느낌의 상태 그리고 욕망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무심히 알아차릴 수 있다. 깨어있는 마음챙김으로 욕망을 대하면 한동안 욕망의 에너지가 더 강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욕망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때 허겁지겁 욕망을 채우지 않고 단순히 현재에 머물 수 있으면 불편감은 결국 서서히 사라진다. 그러면 편안한 느낌, 몸과 마음의 평화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남을 볼 수 있다. 심지어 욕망을 넘어선 온전함과 충만함의 상태가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임을 알게 된다.

우리는 욕망을 내려놓았을 때 일어나는 기쁨과 단순함을 느끼지 못하면서 허겁지겁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늘 깨어있는 마음챙김이 일상화될 때 삶은 보다 단순해지고 더 행복해진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집착과 욕망 속에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 탐욕과 원함이 없다는 것은 세상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탐욕과 원함이 없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멀어지기보다 오히려 세상의 풍요로움에 깨어난다. 내면의 텅 빈 널찍한 공간과 만날 수 있다. 텅 빈 공간은 행복과 만족으로 가득한 놀랍도록 즐거운 경험을 우리에게 선사한다. 모든 존재와의 상호연결성을 느끼기 시작한다. 가슴이 풍요로워지며 우리가 느끼는 안녕감도 커진다. 이기심이 줄고 무의식적인 두려움도 사라진다.

기적 같은 지구에서 우리가 숨을 쉬며 함께 살아있음을 축하한다. 풍요의 마음은 기쁨과 두려움, 이익과 손실, 고귀함과 이기심이 뒤엉킨 이 세상을 온전히 품어 안는다. 진정한 풍요로운 마음은 그 자체로 이미 온전하다.

사찰의 커피문화

김상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불교학전공 / 바리스타

I. 다도에서 커피로!

‘다반사^{茶飯事}’라는 말이 있다. ‘다반사^{茶飯事}’는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이라는 뜻으로, 보통 있는 예사로운 일을 말한다. 이는 ‘흔한 일’ ‘예삿일’로 바꿔 쓸 수 있다. 즉 다반사라는 단어의 의미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란 뜻인데, 다반사의 ‘다’가 차를 뜻하는 ‘茶’로 쓰인다는 점이 눈여겨볼만 하다. 짐작하건대 우리 민족이 그만큼 차와 가깝게 지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참선 수행을 한다고 할 경우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일상생활이 곧 불교의 선종에서 유래된 선과 관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의 차 문화를 증흥시킨 초의선사¹⁾와 관련하여 다선일미 사상에서 살펴볼 수 있다. 조선 후기의 학승이자 선승인 초의선사는 차를 매우 애정 하였으며 차를 단지 기호식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달리 말하면 교류와 소통의 도구로 여김과 동시에 선과 차가 둘이 아닌 하나의 맛이라는 다선일미^{茶禪一味} 사상을 표방하였다. 그는 『동다송』²⁾과 『다신전』³⁾을 엮었다. 차생활의 일상에서 맛은 물론 멋을 나타내었고, 다도를 수행의

한 방편으로 이해하면서 그 사상을 확고히 하였다.⁴⁾ 또한 차를 마시기까지의 과정을, 인간의 정신과 육체와 연관시켜 지혜로움을 드러내는 수행으로 여겼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수행을 함에 있어서 ‘茶’를 기반으로 수행을 하는 등, 차의 문화가 형성되어진 상황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단지 신라시대에 이르러 각 사찰에서 부처님께 차를 공양 올리는 헌다를 시작하였다는 유래이다. 이러한 헌다는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며 차 문화가 흥성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불교의 선과 다도의 풍습은 초의선사로부터 주창된 다선일미 사상으로 확고하게 정립 형성되어 왔음을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선사로 말미암아 선^禪과 다도^{茶道}는 불가분의 관계로 거듭 발전되어 사찰의 ‘음다’와 ‘행다’ 문화가

1) 초의선사 : 1786~1866년. 조선후기의 선승이자 한국 차의 중시조로 다도의 증흥에 크게 공헌했다.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진리를 구현하려는 노력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다선일미(茶禪一味) 사상에 심취했다. 거리낌 없이 세간인과 교류하면서도 그에 물들지 않은 승려로 이름을 날렸다. 김희경 기자, 『차한잔』 “茶神을 아십니까” 향기·색·맛 최고 경지 오른 ‘선명’, 동아일보, 2003.08.21

2) 『동다송』 : 초의(草衣)선사가 정조의 부마 홍해거(洪海居)의 부탁을 받고 쓴 것으로 1837년 한국차(茶)에 대하여 송(頌)형식으로 지은 우리나라 차에 대한 68행의 7언 고시체(古詩體) 송시(頌詩)이다. 차의 덕을 칭송하여 이를 널리 찬미함이니 곧 동국에서 생산되는 차의 미덕을 찬양한 노래이다. 동다송은 그 내용이 생장개화, 꽃과 싹, 고사, 제다, 제품, 동차 실행, 동차 송찬, 동차 선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동호, 윤백현, 이영희, 『차생 활문화대전』 홍익재, 2012. p.350~500.

3) 『다신전』 : 초의가 지은 다서(茶書)로 ‘차신전’이라고도 한다. 내용은 차따기(採茶), 차만들기(造茶), 차의 식별(辨茶), 차의 보관(藏茶), 물을 다루는 일(火候), 끓는 물의 분별(湯辨), 탕용노론(湯用老嫩), 차끓이는 법(泡法), 차를 넣는 법(投茶), 차 마시는 법(飲茶), 차의 향기(香), 차의 색(色), 차는 잡된 것이 섞이면 진을 잃는다(點染失真), 변질된 차는 쓰지 못한다(茶變不可用), 물의 품평(品評), 우물물은 차에 적당하지 못하다(井水不宜茶), 물의 보관(貯水), 차도구(茶具), 찻잔(茶盞), 찻잔 닦는 행주(拭盞布), 깨끗한 차(茶衛) 등 20항목으로 서술되어 있다. 김상현, 『초의선사(草衣禪師)의 다도관(茶道觀)』(사학지) 1976, p.10

4) 옥화 같은 차 한 잔 기울이니 거드름이 바람 이는 듯하네. 몸이 가벼우니 이미 차향이 스며들어 맑은 경지 올랐다네. 밝은 달 촛불 삼고 아울러 벗도 되나니 흰 구름으로 자리 펴고 병풍을 두르리라. 원희, 『향기로운 동다여 깨달음의 환희라네』, 김영사, 2014. p.209.



정착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오늘날 사찰에 가면 다실은 기본이고, 그 곳곳에 놓인 여러 다기들이 눈에 띄게 된다.

그런데 궁금하게도 근래에 들어 다기와 찻잎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도구들과 커피콩 즉, 원두를 이용하여 내리는 커피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는 언제부터인가 찻잎과 커피가 포함되어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기존에 필요했던 찻잎보다 나날이 증가하는 커피 수요에 발맞춰 새롭게 커피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커피문화를 크게 나누어 본다면, 우선 커피가 한국에 전래된 시기가 언제이며, 그리고 그에 따른 제조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종단을 중심으로 하여 사찰까지 접근하려는데 이 논문의 목적이 되겠다. 따라서 커피문화가 불교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방편이라면, 종단차원이나 사찰 또는 이외의 방법으로든 커피를 도입하는 활용방안을 모색해 봄직하다. 동시에 그로 인한 의의와 문제점을 풀어보고자 한다.

여름과 녹차

김정애

다도전문가
정각사 교도



여름의 마지막, 무더위가 최고조에 달하는 8월입니다. 더위로 인해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고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내 건강을 지키고 예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식약동원(食藥同原)이라 하여 “음식과 약은 그 뿌리가 같다”라고 해 음식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여 왔습니다. 또한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도 “차는 여름에 마시면 열독을 없애주며 체한 것을 소화시키고 불에 입은 화상을 해독시켜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녹차에는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더위에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효과도 있으며 또한 살균과 해독 작용을 하는 카테킨과 타닌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여름철 질병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식중독균이 많은 생선회나 초밥을 먹을 때, 일본에서는 초밥집이나 횃집을 가게 되면 유독 뚝고 진하게 우린 녹차를 제공하여 식중독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장거리 운전을 하는 운전수들이 항상 여름철 음식과 함께 뜨거운

차를 가지고 다녀서 인지 배탈이 나는 일이 드물다고 하며 그래서 한여름에도 중국인들은 뜨거운 차를 마시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고 합니다. 녹차의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식중독균이나 병원성 세균에 대한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고 녹차 1cc만으로도 1만개 정도의 균을 빠르게 살균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또한 녹차는 여름철 아무리 세탁해도 옷에서 나는 쉰내를 없애준다고 합니다. 옷의 쉰내는 땀이 공기 중 습기와 합쳐져 세균이 번식했다는 증거이며 섬유유연제를 아무리 많이 써도 옷에 향만 덮을 뿐 균이 사라진 건 아니라고 합니다.

먼저 분무기에 약국에서 파는 에탄올을 적당히 넣고 녹차 티백 1개를 넣어준 뒤 잘 우려나도록 흔든 다음 냄새나는 옷 구석 구석 충분히 뿌린 뒤 햇볕에 바짝 말립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면 끈끈한 쉰내가 사라지고 군도 함께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후, 섬유유연제를 사용해 한 번 더 행굼을 해준다면 원하던 좋은 향이 나는 옷이 완성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에 녹차물로 마사지해주면 차의 탄닌 성분이 피부를 진정시켜준다고 합니다. 녹차를 우려낸 뒤 냉동실에 얼려 사용하거나 우려낸 찻잎이나 티백을 차갑게 해 얼굴에 올려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땀이 많이 나서 머리

발이 가렵거나 발 냄새가 심하다면 찻잎을 우린 따뜻한 물에 식초 1~2방울 떨어뜨린 뒤 머리를 행구게 되면 가려움도 사라지고 머릿결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을 15~20분정도 담가 주면 살균효과가 있어 냄새와 무좀균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갈증으로 시원한 녹차를 마실 때, 뜨거운 물에 우린 녹차를 냉장에 오래 두게 되면 녹차속의 페리페놀류 성분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떫은맛을 내게 됩니다. 녹차를 시원하게 마시려면 40~50℃의 낮은 온도에서 우려내거나 시판용 전용티백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이 뜨거운 찻물을 상온에 두면 성분 변화가 일어나기 쉽기에 찬물에 우린 녹차를 냉장에 보관해 여름철 식수대용으로 마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뜨거운 물이 아닌 찬물에도 쉽게 우려내는 녹차가 개발되어 어디서나 쉽게 마실 수 있고 떫은 맛도 없어 어린이가 먹기에도 거부감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여행을 가서 많은 사람들이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흔히 물이 달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물에 있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세균성 설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행 전 간단히 1~2개의 녹차 티백을 500ml 생수에 넣고 여행 중 다니며 마신다면 배탈이나 설사 없이 즐거운 여행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포항하면 과메기!!!

그런데 이제 포항하면 구룡포요 구룡포하면 일본인 가옥거리가 저절로 연상되는 도시가 되었다. 드라마 몇 번 출연으로 이리도 핫플레이스가 되다니^^

구룡포九龍浦는 영일만을 형성하고 있는 범꼬리(많은 사람들은 토끼 꼬리라 하지만 호미꽃은 호랑이호를 쓰기에 범꼬리라 함이 맞겠지?)의 동쪽 해안선이 남쪽으로 내리 달리다가 응암산의 한줄기와 만나는 지점에서 활처럼 휘어져 구룡포만을 이루는데 이를 끼고 길다랗게 놓여 있는 마을이다.

1923년에 방파제를 쌓고 부두를 만듦으로써 본격적인 항구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신라 진흥왕 때 장기현령이 늦봄에 각 마을에 순시하다가 지금의 용주리를 지날 때 갑자기 폭풍우가 휘몰아치면서 바다에서 용10마리가 승천하다가 그 중 1마리가 떨어져 죽자 바닷물이 붉게 물들면서 폭풍우가 그친 일이 있는데, 9마리의 용이 승천한 포구라 하여 구룡포라 했다고 한다. 또 다른 전설에 의하

면 용두산 아래에 깊은 소(澗)가 있었는데, 이 소안에 살던 아홉 마리의 용이 동해 바다로 빠져나가면서 승천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렇듯 좋은 기운이 가득한 구룡포는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와본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볼거리 먹을거리 가득한 곳이다.

구룡포 해수욕장, 구룡포항, 장길리 복합 낚시공원, 일본인 가옥거리를 거쳐 호미곶까지의 여행코스를 눈엔 시원함이 가득, 입엔 바닷내음 가득한 힐링 여행으로 추천한다.

#청춘의 구룡포

내가 대학생이라는 낭만의 아이콘으로 자유를 누리던 때엔 자가용 없이도 먹을거리 바리바리 싸들고 무거운 짐 메고 버스타고 두벽이 하면서 놀러 다녔던 곳이 구룡포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교실에 있는 듯 없는 듯 공부도 안하면서 책상에 딱 붙어 앉아있고 학교, 집 말고는 다른 곳을 다녀 본 적이 없고 재미지게 놀아본 기억이 없던 나에겐 대학이라는 곳은 일탈이었다. 공부에서 해방되는 동시에 금기되어진 음주와 가무가 용인되고 취재라는 명목하에 카메라 하나 목에 걸치고 셔터를 눌러대던 20살의 내가 처음 대학동기들과 함께 놀러 간 곳이 구룡포였다. 지금은 20분이면 가는 가까운 곳이지만 그땐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구룡포행 버스를



를 타고 덜컹덜컹 시골길을 달려 도착한 곳이었지...

‘이런 곳에서 놀게 뭐가 있담...’ 이라는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애쓰며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 돛자리 펴고 앉아 기타를 치던 멋진 녀석의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게임을 하며 놀았던 기억이 떠올라 입가가 썰쭉썰쭉 거린다. 호기롭던 시절 몇몇의 남자동기 녀석들은 여자동기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며 이른 여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깊고 푸른 바다 속으로 옷을 훌러덩 벗고 뛰어들었고, 하얗고 고운 백사장 위에서 씨름도 하며 엉겨 붙고 뒹굴고, 개중 장난기 가득한 녀석들은 여자동기들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에너지를 자랑했다. 저녁에는 출렁이던 밤바다를 보며 소주 한잔 걸치면서 우리가 아니

면 누가 대한민국을 걱정 하냐는 듯 시국에 대해 열띤 토론도 하고 미래에 대한 큰 꿈 가득한 설계를 입 밖으로 내 뱉으며 가치관을 적립하기도 했던 시절이 떠오른다. 지금의 구룡포는 작은 어촌마을이 아닌 관광객들로 가득한 북적이는 어촌이다.

#관광지 구룡포

소박함에서 조금 벗어나 드라마 몇 편의 촬영으로 때때웁으로 갈아입고 세련미 조금 흘러넘치는 곳으로 변신~

특히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로 유명세를 탄 일본인 가옥거리는 조금은 이국적인 상점들로 3보1촬(3걸음 걷고 한번 촬영하고)하게 되는 곳이 되었다.

일본인 가옥거리는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데 30년 전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촬영지였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잠시 소개하고자 한다.

박상원, 채시라 주연의 드라마로 이곳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에서 촬영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곳은 우리의 아픈 과거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다.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인들이 거주하던 것이니 말이다. 우리 조선인들이 겪었던 일제강점기의 슬픔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오죽했으면 해방된 조선 어부들이 시멘트를 발라 일본인들의 흔적을 지우려 애썼을까...

일본인 가옥거리를 보존하는 이유는 우리의 슬픈 과거를 잊지 말자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리라.

다시 '동백꽃 필 무렵' 드라마로 돌아와서, 동백이가 운영하던 '까멜리아' 술집은 '카멜리아 카페'로 운영 중이고, 여옥이가 있었던 위안부들의 터전은 '네컷 사진관' 앞길로, 구워먹는 아이스크림, 이국적인 기념품 가득한 거리로 매일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현대식카메라 앵글에 맞춤되어진 곳이지만 아직도 나에게는 스무 살의 몽글몽글한 소녀가 즐겼던 몰랑몰랑한 기억을 가진 감성 스팟이다. 구룡포가 아무리 발전되고 아스팔트길로 15분 만에 다녀올 수 있는 곳인들 깊고 푸른 곳곳했던 청춘을 간직한 내 맘속 구룡포는 여전히 시골 한 작은 어촌으로 남아있다.



탓줄

김용오

포항 수인사 교도

형산강 젓줄 물고 길게 누운 영일만
수천년 네몸 갈아 모래알로 토해내
송도와 영일대란 해수욕장 낳았고

만고풍상 다 견디어 호미곶이라
명명 하고 그 품에 안긴
상생의 손바닥에 붉은 태양 올려놓고
오만한 너들에게 고한다

두번 다시 노망난 헛소리로
독도가 니들것이라
함부로 짚지마라
길고 긴 나의 탓줄은 아직도 뜨겁다.



논리적 진실은?

범일 정사
정각사 주교



많은 공부를 한 학자가 어느 마을에 이르렀다.

그는 자신의 관점과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비교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과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지 물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가 가장 거짓말을 잘하고, 정직한 사람이 가장 믿을 만하다는 데 동의했다.

그는 그 둘을 차례로 찾아가 똑같은 질문을 했다.

“다음 마을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어느 것이요?”

“산길ियो.”

정직한 사람이 말했다.

“산길ियो.”

거짓말쟁이가 말했다.

그는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았다.

“강길ियो.”

“들길ियो.”

“산길ियो.”

사람들의 대답은 제각각이었다.

그는 결국 산길을 택했지만 정직한 사람과 거짓말쟁이의 문제가 좀체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어떤 사람이 넌지시 말했다.

“현명한자여! 그대는 눈먼 자로다.

가장 쉬운 길은 강이었소. 그래서 거짓말쟁이는 산길을 가리키며 거짓말을 한 것이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은 당신이 당나귀를 갖고 있는 걸 보고 산길을 가리킨 것이요. 정직한 사람은 좀 돌아가더라도 당나귀 타고 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지.”

논리적으로 진실을 찾아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부터 살펴보라.

자신의 환경과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태양 太陽

김재동

법장원 연구원



인도에서 태양신 아디트야(Āditya)는 아디티(aditi)에서 온 이름이다. 이는 무한한 여러 신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신들 중의 신, 우주 근원의 생명을 의미한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태양뿐만 아니라 천계지계(天界地界)를 지배하는 신들과 한 무리를 이루고 있다.

천공의 수(水)를 지배하는 바루나(Varuṇa) 신이나, 화신(火神, 아그니Agni), 지신(地神, 프리티비Prṥthivī), 풍신(風神, 바유Vāyu), 천신(天神, 디아우스Dyaus. 그리스의 제우스에 상당), 월신(月神, 찬드라마스Candramās), 성숙신(星宿神, 나크사트라Nakṣatra) 등의 신이다.

이집트에서는 태양은 재생하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로 우리러 믿었다. 아침에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은 천공(天空)을 누비다 저녁 때 서쪽으로 사라지는데, 다음날 또 같은 모습으로 동쪽 하늘에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집트의 왕은 태양의 화신으로 여겨졌다. 프수센네스(Psusennes) I세의 황금 마스크에 성사(聖蛇, Holy Snake) 우라에우스(uraeus)가 머리에 붙어 있는 것은 태양과 함께 천공의 수(水)를 지배하는 구현자(具現者)를 나타낸 것이다.

이집트에서 피라미드의 삼각은 태양을 상징하는 것인데, 밀교에서도 삼각은 태양과 관련되어 대일여래를 나타내고 있다. 중대 팔엽부 위에는 통지인(通知印)이라 불리는 삼각화인(三角火印)이 있다. 삼각 바깥쪽은 빛이 타오르고 안쪽에는 만(卐)자가 표시되어 있다. 이는 태양의 엄청난 에너지와 생명력으로 대일여래의 지혜 작용을 나타낸다.

『대비태장삼매야만다라』와 『오부심관(五部心觀)』의 대일여래는 연꽃 위에 삼각을 나타내고 금강저에 둘러싸인 그림으로 나타나, 태양이 지닌 광조와 생명의 작용으로 대일을 나타낸다.

태장 만다라에서는 화천(火天)의 표시도 삼각이다. 이것은 불타는 모습을 나타내지만, 화천은 원래 태양과 관련된 신으로 태양의 분신이며 지상의 것을 천상에 바치는 신이다.

괴로움 속으로 뛰어들 때 답은 있다

법상 스님

부산 대원정사 주지
유튜브 '법상스님의 목탁소리' 운영자
마음공부 공동체 '목탁소리' 지도법사

삶은 고통다. 사랑 때문에 괴롭고, 미움 때문에 괴롭다. 미래의 불안감에 괴롭고, 사랑받지 못할까봐 괴롭다. 그러나 사실 그 어떤 괴로움일지라도 괴로움 그 속에 답은 있다. '번뇌즉보리(煩惱即菩提)'이기에 괴로움의 자리 바로 거기에 보리와 열반도 함께 있다.

보통 우리는 괴로움이 생기면 벗어나려고 애쓴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나를 찾아온 괴로움, 외로움, 불안, 미움, 번뇌를 버리고 새로운 행복, 충만, 사랑, 평안, 고요, 용서를 찾고자 한다면 오히려 어긋난다. 그것은 둘로 나눠놓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분별이기 때문이다.

둘로 나누면 그 중 하나는 선택받고 하나는 선택받지 못한다. 둘이 서로 싸워야 한다. 번뇌가 온 이유는 '번뇌즉보리'를 깨닫게 해 주기 위함이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길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포기하고, 괴로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괴로움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충분히 괴로움이 마음껏 나래를 펴고 괴로움으로 발산될 때 오히려 괴로움은 머지않아 사라

져 간다.

진흙 속에서 연꽃은 핀다. 괴로움이 나를 찾아 온 이유는 괴로움으로 발산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그것의 목적은 괴로움에 있는데, 내가 그 괴로움을 거부하려고 하거나 없애려고 애쓴다



면 그 괴로움을 상대로 싸우자는 것이 아닌가. 그 때 괴로움과 나는 한판 싸움을 벌여야 하고 그 싸움에 우리는 언제나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곧 삶 자체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괴로움의 본래 목적인 괴로움이 나를 통해 자유자재하게 발산되기를 허용해 주어 보라. 괴로움을 환영하고 받아들여 괴로워해 주기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괴로움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려고 했던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깨달음의 가능성도 함께 따라 오게 된다. 괴로움이 와야 깨달음도 오는 것이다. 번뇌즉보리는 곧 괴로움이 곧 깨달음과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괴로움을 거부하면 깨달음도 거부된다.

사실 괴로움은 깨달음이 자신의 본래 모습을 숨기고 괴로움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 환영일 뿐이다. 괴로움이라는 가면이 힘을 발휘할 때는 사람들이 그 가면을 진짜라고 여기면서 거부할 동안 뿐이다. 그 괴로움의 가면이 진짜인 줄 알고 거부하게 되면 괴로움은 진짜인 것처럼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짓누르게 된다.

그러나 한 생각 돌이켜 괴로움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괴로움이라는 가면 뒤에 있던 진짜의 내가 모습을 보인다. 괴로움이

수용되는 순간, 곤장, 전혀 예상치 못했던 깨달음과 성장이 등장하면서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이다.

괴로움, 외로움, 불안, 미움, 번뇌를 버리고 행복, 충만, 사랑, 평화, 고요, 기쁨 등을 따로 찾으려 애쓰지 말라. 오히려 괴로움, 외로움, 불안, 고통, 번뇌, 아픔 속에 내가 그토록 찾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삶이란 그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삶의 아이러니다. 극과 극은 서로 다른 둘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하나인 것이다. 생사 속에 열반은 피어 있고, 중생 속에 부처는 있다. 색즉시공이며 공즉시색이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세상에 따로 따로 나뉘어진 것은 어디에도 없다. 행복과 불행은 둘이 아닌 한 몸이다. 미워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은 극단의 둘이 아니다. 그 둘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다. 극단적으로 미워하거나 극단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가지지 말라. 어느 한 쪽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겨 그것만을 선택하려 하지 말라. 선택과 분별과 차별 속에 지혜는 없다. 이것 속에 저것이 있고, 불행 속에 행복이 있다. 삶은 이토록 아름답고도 장엄한 반전이다.

- '법상 스님의 묵탁소리' 공식 카페

퀴즈로 알아가는 알쏭달쏭 상식

①㉠			㉡			㉢		㉣	
						②			㉤
		③							
					④			⑤	
	⑤	㉥		㉦			⑥㉧		㉨
㉩				⑦	㉪				
							⑧	㉫	
		⑨	㉬						
⑩					⑪				
		⑫						⑬	

칸을 채워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정답란에 기재되며,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news@chongji.or.kr 카카오톡 친구추가 : 불교총지중 홍보실

가로 열쇠

- ① 대자대비(大慈大悲)를 근본 서원으로하는 보살의 명호, 관자재보살
- ② 옴마니반메훔
- ③ 부처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경전을 반포하거나 간행하는 데 보시하는 것
- ④ 원효의 중심 사상
- ⑤ 모든 원한을 버리고 중생을 차별하지 않는 보살의 네 가지 마음
- ⑥ 사찰에서 새벽 예불 전에 도량을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불교의식
- ⑦ 총지중에서 하는 불공법 가운데 하루 '마음 공부'하는 날, 일요일
- ⑧ 여러가지 물품을 한 곳에 벌여 놓고 보는 것
- ⑨ 죽은이의 영혼을 극락으로 보내기 위해 치르는 불교의식
- ⑩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표방하는 생활불교 종단
- ⑪ 하나로 합쳐진 마음
- ⑫ 어떤 일을 꾸미는 피나 방법
- ⑬ 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문헌정보 전문가

세로 열쇠

- ㉠ 상대방의 몸가짐이나 얼굴 표정, 근육의 움직임으로 속마음을 알아내는 것(궁예)
- ㉡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는 걸음마다 도량이라는 뜻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
- ㉢ 가까운 혈족끼리 서로 싸움
- ㉣ 육바라밀 가운데 네번째 수행덕목이자 항상 부지런히 도를 닦는 것
- ㉤ 말과 행동
- ㉥ 총지중에서 평상시 회사고에 본인이 직접 넣는 희사를 말함
- ㉦ 남을 골리기 좋아하거나 남이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보(놀부)
- ㉧ 뒤주 속에 갇혀 굶어 죽은 비운의 왕세자. 영조의 둘째 아들
- ㉨ 어떤 일을 계기로 그 전까지 마음을 완전히 뒤집듯이 바꿈
- ㉩ 물방울이 모여 돌을 뚫는다는 뜻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음을 이르는 말
- ㉪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를 깨우친 날로 음력 12월 8일
- ㉫ 간절히 바라며 이루고자 하는 바를 적은 종이
- ㉬ 석가모니부처님이 탄생한 날로, 2018년부터 부처님오신날로 공식 명칭이 바뀜
- ㉭ 건설 기둥에 보를 얹고 그 위에 처마 도리와 중도리를 걸고 마지막으로 마룻대를 올리는 일

지난호 정답

①㉔	마	니	㉒	메	㉑		②	㉓	강
옴			반		흠		해	금	
짜			가		③	성		강	
④					자		⑤		
달	마	대	사		오		육	합	상
짜			유		⑥	육		장	
	⑦㉕			㉖			㉗		㉙
	유	유	상	종			하		창
	마			친		⑧	광	안	대
⑨㉚			⑩㉛		㉜		거		교
독	경		개	회	식				절
야			구		⑪	자		㉝	
⑫			사		비		로	자	㉞
청	일	전	쟁						나
청			⑭	이	심	전	심		비
			이	심	전	심			비

〈가로〉	〈세로〉
① 옴마니반메흠 ② 해금강 ③ 자성 ④ 달마대사 ⑤ 육합상 ⑥ 인육 ⑦ 유유상종 ⑧ 광안대교 ⑨ 독경 ⑩ 개회식 ⑪ 사자 ⑫ 청일전쟁 ⑬ 비로자나 ⑭ 이심전심	㉑ 옴짜달짜 ㉒ 반가사유상 ㉓ 흠자오인 ㉔ 금강합장 ㉕ 유마경 ㉖ 종친회 ㉗ 하안거 ㉘ 창교절 ㉙ 독야청청 ㉚ 개구쟁이 ㉛ 식사 ㉜ 자비심 ㉝ 각자 ㉞ 나비



불교총지중 법회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상반기 49일	양력
	오전 10시	진호국가불공	2월 19일 ~ 4월 8일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하반기 49일	양력
신년불공	1월 첫째 주 7일간	진호국가불공	5월 28일 ~ 7월 15일
종조탄신일	양력 1월 29일	해탈절(우란절)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양력 9월 8일	창교절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중 연중 불사

신년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중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 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사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훤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중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3452-7485
서울, 경기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 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해경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중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대구, 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 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 201호(대영아르피나)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급산7길 7-3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독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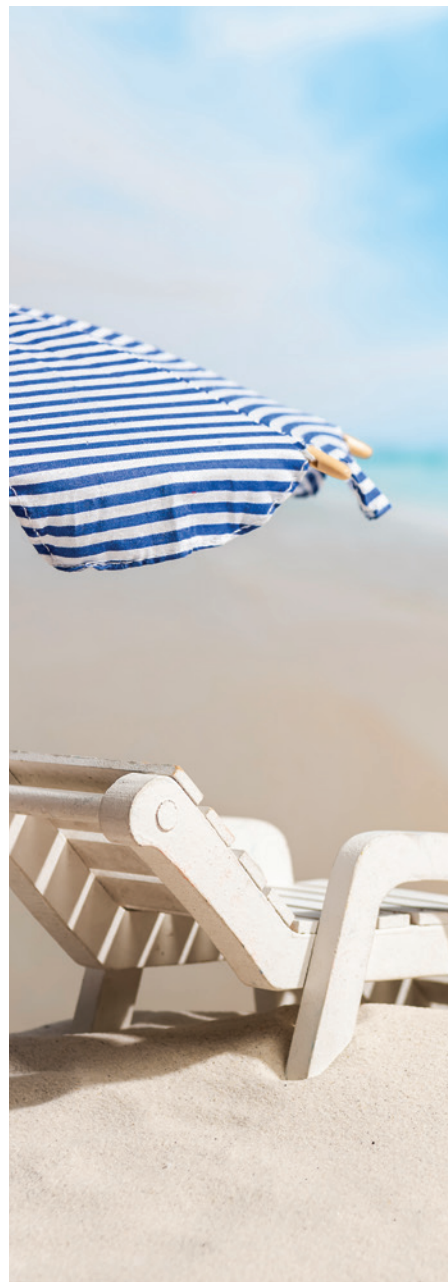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공덕성 김윤서 김종철 김희곤 법 공 손경옥
안한수 오승현 오채원 오현준 이인성 이태림
이혜성 자선화 정법계 정재봉 정화연 총지화
한철수



매미가 울면 장마가 끝이라고 하지요.

어느 덧 꿈꿨던 장마철이 지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8월입니다.

여러분은 여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은 모두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휴가, 휴식'이 아닐까 합니다.
'여름방학'인 셈이죠.

저마다의 휴식 역시 다양합니다.
여행, 독서, 한없이 늘어져 잠을 자는 일...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쉬다는 것은 여러 방식으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번 여름,
노래 보다는 연주 위주의 곡을 들으며
음악으로 여름의 눅눅함과 끈적임을
잠시 잊고자 합니다.

일렉트릭 기타, 잔잔한 드럼, 재즈 기타 베이스,
악기들의 연주 멜로디를 관하다 보면
기분좋은 나른함 속에 긴장과 피로가 조금은
풀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휴식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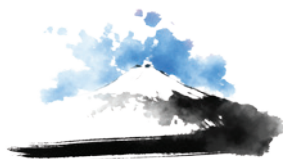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저마다의 휴식을 통해
모두 건강한 여름을 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행일 총기 51(2022)년 8월 1일
발행인 우인 정사
편집책임 김상미
발행 불교총지중
주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화 02-552-1080~3
팩스 02-552-1082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 총지미디어
✉ 이메일 : news@chongji.or.kr
💬 카카오톡 친구추가 : 불교총지중 중보실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08월호



선풍(巖風: 회오리 바람)에도 맹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묘고산(妙高山)처럼
그렇게 안인(安忍)하라

- 환당 대종사 법어록 중에서 -